

###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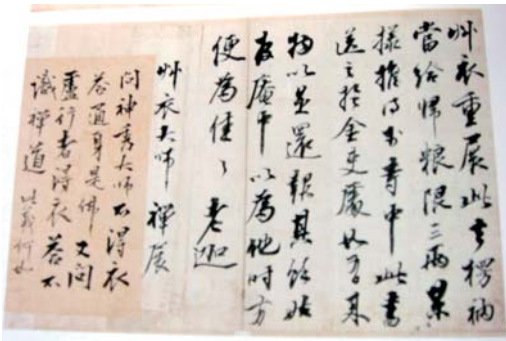
추사가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는 초의였다. 그는 추사에게 차와 종이, 약재뿐 아니라 열악한 풍토를 견디게 한 장류를 보내 벗의 심신을 위로하였다. 특히 제주 시절, 추사는 물과 제주를 오가는 자신의 지기를 편의를 초의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목연첩>에 수록된 이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이 편지는 간지를 표기하지 않아 그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초의중전(草衣重展)'이라 시작되는 편지는 별도로 보낸 추신과 합본된 것이다. 우선 피봉이 '초의대사 선전(草衣大師 禪展)'이라 쓴 편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의께서 거듭 보십시오. 여기 가는 능 스님에게 돌아갈 양식으로 3냥을 주시고 그 돈은 절에서 찾으십시오. 이 편지를 김 아전에게 보내 만약 도착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갖고, 그 나머지는 (그대의) 암자에 보관하여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가(草衣重展 此去撈納 當給歸糧三兩 某樣推得於寺中 此書送之於金吏處 如有來物 以是還報 其餘姑存庵中 以爲他時方便 爲佳 老迦)

위 편지에서 "초의께서 거듭 보십시오"라고 한 점에서 추사는 어떤 일을 초의에게 부탁한 후, 거듭하여 "능 스님에게 양식으로 3냥을 줄 것"을 전했던 것이다. 실제 능 스님이 어느 절의 승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사의 명성을 찾아 제주를 방문했던 승려라 여겨지는데, 추사는 그가 돌아갈 때 필요한 경비를 초의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이 주목

## 초의 스님, 추사의 필요물품 조달



도판은 <나가목연첩>, 추사친필본

### 추사 찾아 제주 온 스님들 이야기 언급 추사의 정신적 의지처는 불교와 차 불경 보며 의문 나면 초의에게 질문

된다.

실제 추사의 편지에는 자신을 찾아 제주를 내왕했던 승려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불교계에 알려져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유배 시절 초의는 끊임없이 추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주었고, 추사 주변의 소소한 일들을 처리해 주었는데, 이는 그가 "이 편지를 김 아전에게 보내 만약 도착한 물건이 있으면" 이 돈으로 알아달라고 한 것이나 "나머지는 (그대의) 암자에 보관하여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에서 확인된다.

평생을 함께 했던 추사와 초의,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벗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고매한

수행력과 우수한 차품을 세상에 알린 것은 추사이다. 청대의 신문물을 초의에게 전해줘 근대화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리(文理)에 눈을 뜨게 한 이는 추사였다. 그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변함없는 우정과 배려를 잊지 않았던 초의였으니 이들의 우정은 후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

한편 추사의 정신적 의지처는 불교와 차였고, 이를 끊임없이 공유했던 인물이 초의였던 셈이다. 추사는 제주 시절 불교에 깊이 천착했는데, 불경을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언제나 벗을 들어 초의에게 묻곤 했다. 이는 신수와 혜능의 선지를 묻는 추신에서도 확인된다. 추신은 다음과 같다.

물기를 신수대사는 옷을 얻지 못했다. 답하길 온 몸이 다 부처이다. 또 물기를 노행자는 옷을 얻었다. 답하길 선도를 알지 못했다. 이 뜻이 무엇인지요(問神秀大師不得衣 答通身是佛 又問廬行者得衣 答不識禪道 此義如何)

추사는 이것을 어디에서 읽었을까. 오조 홍인께서 전한 선지의 깊은 뜻을 추사는 이해하지 못하고, 초의에게 그 깊은 뜻을 물었던 것이다. 신수대사는 오조 홍인의 제자이며, 노행자는 홍인의 의발을 전해 받은 육조 혜능이다.

옷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신수대사는 온 몸이 부처이며, 노행자는 선도를 몰랐다는 뜻은 무엇인가. 초의의 답이 궁금하다.



박중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時와 禪은 닮은 형제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 시인 유자효 씨 (방송인)

문학을 꿈꾸던 청년 기자가 되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꿈처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 보내주셨습니까  
한없이 자비로운  
큰 손이었습니까.

-유자효의 '기도' 중에서-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생긴 유자효 시인(67)은 심장 부위를 가르는 대수술을 받는다. 2년전인 그의 나이 예순 다섯의 일이었다.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던 수술 당시 시인은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순간 자비의 큰 손을 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의 경험은 고스란히 시가 되었고 최근 14번째 시집 <심장과 ㅼ>로 출간되었다.

유자효 시인 앞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붙는다. 시인과 방송인. 세속의 흐름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향해 나가는 시인과 시류의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는 방송기자는 직업의 공존이 가능한 것일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유자효 시인에게만은 가능한 일이었다.

20대 초반 시인이 되었고, 후반엔 KBS에 기자로 입사하면서 40여년을 방송인으로 살아온 그는 시인 같은 기자, 기자 같은 시인이라 불려왔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9월 24일 백발의 너털웃음이 매력적인 유자효 시인을 만나 그의 문학과 삶 그리고 종교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1968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산사'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그동안 <성수요일의 저녁> <짧은 사랑> <전철을 타고 히말라야를 넘다> <사랑하는 아들> <심장과 ㅼ> 등의 시집을 내왔다. 정치·문학·유심문학·현대불교문학·평문문학·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시인으로서 인정받아온 그는 방송국을 퇴직한 지금은 시인으로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학창시절 그는 백일장을 휩쓸던 학생이었다. 글을 쓰기 위해 동국대 국문과를 입학할 만큼 문학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당시 국문학자 양주동, 서정주 시인, 문학평론가 조연현 등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동국대 국문학과는 문학청년들에게 각광받는 과였죠. 하지만 등록금이 비쌌던 사립대를 가정 형편상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죠."

그는 동국대를 다닌 1년이 헛수고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 기간 동안 교양수업으로 불교학개론과 불교문화사를 듣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불교를 잘 몰랐는데 동국대에서 교양과정으로 불교 이론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짧은 시절 남자가 미칠 수 있는 세 가지가 문학 종교 고등고사라는 말이 당시에 있었어요. 저는 문학의 길을 걸었지만 당시 불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근간을 공부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이후 시인과 불교계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그는 1997년부터 꾸준한 만해축전 사회를 맡아오고 있

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는 신홍사 조실이자 시인인 오현 스님과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8년 데뷔 시절부터 같은 문인으로 스님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스님들 중에 유명한 시인이 많잖아요. 지금은 환속하신 고은 시인도 그런 분 중 하나였죠. 그렇게 오현 스님과 알고 지내다가 어느날 스님께서 만해축전을 기획하고 있으니 방송인으로서 사회를 봐줄 수 없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97년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 1회 만해문학상 시상식에서부터 현재의 만해축전까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 유럽에서 세상을 보다

불교집안서 자라난 그는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는다. "어머니는 눈 떠서 주무실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편함은 몸을 이끌고 절에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어렸을 적 다녔던 부산 선암사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범종을 시주하셨을 후에도 그 범종소리를 들으시라고 근처 선산에 묘소를 마련해주셨어요. 이처럼 불교는 저에게 친숙한 문화였고 그래서 가장 마음 편한 종교입니다."

그는 결국 불교의 가르침에는 '원숙한 인간 그리고 인격체가 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 1968년 시조 '山寺'로 등단

<심장과 ㅼ> 등 총 14권 시집 출간

KBS·SBS서 35년간 기자로 재직

기자가 서정적인 시 같다는 평가 많아

불교집안서 자라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

만해 축전 1회부터 17년간 사회 맡아

불교의 가르침...원숙한 인격체 되는 것

부처님은 인류사에 있어 최고의 시인

"깜깜한 방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데 그것을 훑 보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 어둠은 결국 적멸이고 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 삶이 굉장히 소중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이토록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지만 불교를 최고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KBS에 재직하던 1980년대 파리 등 유럽에서 특파원을 하며 유럽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그는 가톨릭 수도자들의 철저한 수도생활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초기 기독교는 수양과 수련을 중요시했죠. 유럽 수도원 중에서는 성직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삼!  
02)2004-8216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편) 8cm]

#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 055)974-0033, 055)973-4006  
상당 및 예약 :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창



1989년 KBS 유럽 특파원 시절 국민 방문 보도 장면.



2012년 한국시인협회 시낭송회. 달터님 최불암·정미희 씨와 신달자 시인과 함께.



40년 지기인 오현 스님과 문인들이 함께한 일본 여행. 사진왼쪽부터 이상국 시인,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유자효 시인, 오현 스님, 유자효 시인의 아내 왕선희



유자호 시인은 ... 1947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사범대 불어과를 졸업했다. 1968년 <신아일보>와 <불교신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성 수요일의 저녁> <짧은 사랑> <떠남> <여행의 끝> <전철을 타고 히말라야를 넘다> <사랑하는 아들아> <심장과 뼈> 등이 있다. 정지용문학상, 유심작품상, 현대불교문학상, 편운문학상,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와시학회장, 지용회장 등을 역임했다. KBS, SBS 기자로 재직했으며 현재 구상기념사업회장, <불교신문>논설위원,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는 규율이 엄격한 곳도 있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불교와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특파원 당시 유럽의 초기 명상법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양사상에 눈뜨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는 탁났한 스님이 프롤리타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이 오리엔탈리즘에 상당한 호기심을 보일 때였어요. 티베트 불교, 남방불교 등이 당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명상 수행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정신과 치료에 명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이후 한국에 와서도 20년 동안 유럽에 불교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리다가는 앞으로는 한국이 유럽 불교를 배워야 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걱정도 됩니다.”

시인 같은 기자, 기자 같은 시인

이렇게 그는 기자의 시선으로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보았고 이를 시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기자 같은 시인, 시인 같은 기자가 된 것이다. 그가 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엽에 살았던 한 남자의 삶의 발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시를 쓰는 것을 평생의 지향점으로 삼았던 저에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삶이 먼저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기자라는 제 직업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것이 또 시가 되었고 저의 세계를 갱신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니 이 또한 모두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제 삶을 바탕으로 제 작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시인은 삶의 이상향이었고 기자는 현실이었다. 오랜 시간 이 둘을 놓고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의 결론은 결코 기사와 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언어의 압축이고 방송 기사 또한 일어난 사건을 압축하는 일이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둘이 다르지 않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 세계시인대회에서 고은 시인과 함께.

아요. 그래서 제 기사가 서정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시인의 눈으로 보니 다른 기자들이 예사로 넘길 것들을 더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제 기사가 시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제 시가 기사 같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를 잘 써야 기사도 잘 쓸 수 있고 기사를 잘 써야 시도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KBS를 거쳐 SBS로 이직하면서 방송기자로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를 쓰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였다. 그리고 2008년 SBS를 퇴직한 그는 본격적인 전업 시인의 길로 들어선다.

“방송은 저에게 생활인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남은 생만큼은 못다했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시에 몰입하고 있죠. 시인은 정년이 없잖아요? 좀더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보고 또 그로 인해 작품 세계가 깊어진다며 지금이 바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시기라 생각했어요.”

언어의 조탁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시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불교는 다른 뜻하면서도 많이 닮았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인의 명상은 발견에 가깝죠. 오랜 시간 생각해 생각을 거듭해서 나오는 정신적 산물이 시죠. 불교의 선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진리의 세계죠. 둘의 목표는 다르지만 그 발상의 형태는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 후에 계승을 남기셨잖아요? 인류사에 있어 최고의 시인이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 경지와 종교의 경지가 닮았다고 말하는 시인은 시와 선은 형제와 같다고 표현한다. 앞으로 그는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고민이 많다고 해요. 종교도 예술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종교계와 예술계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민해축전 1회 대회 때부터 사회를 맡아오고 있다.

전법일기

영어담마캠프(6)

나의 캠프에는 마니아들이 있다. 이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엄마를 졸라서 캠프에 참석을 한다. 가족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짤 때면 먼저 자우 스님 영어담마캠프 일정을 물어보고 잡으라고 한다고 전화가 곧잘 온다. “스님, 우리 아이가 자기는 꼭 영어담마캠프에 가야하니까 스님께 언제 하는지 물어 보고 가족 휴가 일정을 잡으라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눈치다. 어떤 아이는 말을 안들을 때마다 “너 이렇게 하면 내년 영어담마캠프 안보내준다”라고 협박을 하면 곧바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도 한다.

캠프마니아들 중에서도 인상적인 아이는 민지다. 민지는 이제 3학년이다. 민지는 1학년부터 캠프에 왔다. 다른 일반캠프보다 긴 일정을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1학년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내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 아이가 혼자 씻을 수 있는지,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지, 부모님 떠나서 생활해 본적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허락한다. 민지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다.

어머니의 민지가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설득에 1학년이라도 허락을 했는데 캠프에 와서도 놀랍게도 적응을 잘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신나했다. 특히, 캠프에 올때마다 엄마에게 잘못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수행의 씨앗이 있는 아이다.

캠프 때마다 나의 방 아무마루에는 캠프에 진행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날짜별로 프로그램별로 박스에 담아 놓고 점검을 한다. 아이들은 힐끔 힐끔 지나며 이번에는 스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

이 순간이 영원하다 믿는 아이들



그림 · 박구원

가 궁금해 하기도 한다. 아침을 먹고는 아이들 운 력시간이다. 팀별로 마루다기, 방청소 등을 해야 한다. 한참 마루에서 정리를 하는데 민지가 마루를 닦다가 나의 소중한 박스를 보더니 “스님! 이번에는 준비를 아주 많이하셨네요” 하고 나를 칭찬해준다.

“그럼, 스님이 이번에도 너희들 즐겁게 해주려고 신경 좀 많이 썼지” 민지는 씨익~웃는다. 그러면서 하는말 “그런데 스님 이 캠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3일 까지 하지” 날짜를 묻은 줄 알고 대답했더니 민지는 살짝 답답하다는듯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실꺼냐구요?” “아, 글썽 언제까지 할까? 이번 캠프해보고 결정해야지, 스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좀 힘들어.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듯 “제가 중학교3학년 될 때까지는 꼭 하세요” 한다. “캠프가 그렇게 좋아?” “네, 저는 집보다 절이 좋아요. 이곳에 살면 좋겠어요”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아이들에게 올해는 또 어떤 예쁜 마음을 심어줄까?”

내일이면 캠프가 끝난다. 나는 아이들이 오늘 하루를 다투지 않고 알차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들이 벌써 내일이면 캠프가 끝난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올까? 안 올까?” 나는 오늘이 또 오지 않으니 열심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또 와요”라고 한다.

“어떻게 이 순간이 다시 오지?” 하고 물었더니 “스님, 내년 캠프가 있잖아요?” 라고 되묻는다. “애들이, 스님이 내년에 캠프를 또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순간이 또 오니 안 오니?”

“그런데 스님, 이번 7회 캠프도 했는데, 왜 8회 캠프를 못해요? 당연히 하지요?”

못 말리는 아이들이다. 몇 번을 물어도 지금 이순간이 또 온다는 무개념의 아이들. 아이들 머릿속의 시계는 신나는 기다림으로 멈춰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다. 당연히 지금 이순간이 또 온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즐거운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의 설레는 마음을 어른들이 알아주면 참 좋겠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10th 생명·명상·치유

# 2013 오대산 문화축전

탄허대중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합창제

2013年10月12日 土 오후6시

오대산 월정사 도량 특설무대

출연: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청년회 합창단  
선법 혼성 합창단

초대가수: 인순이, 김태우(god)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월정사 江原日報社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재단, 평창군, 평창교육지원청, 국립공원, 평창문화원, High, 하이원리조트